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협력소장

## 8월

#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8월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곳에서 열사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방계사에서서는 외부온도가 30℃를 넘을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향후 고온 및 이상기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입추유무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더운 날씨로 인해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증체가 지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큰 닭으로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8월달과 9월달은 이러한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한낮과 밤 기온의 온도차이가 1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개방계사에서서는 해마다 온도차이에 의한 호흡기 발생이 문제가 되는 달이다.

무창계사의 경우 열사피해는 다소 적지만 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농장들은 개방계사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증체가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무창계사에 대한 표준 사육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농장마다 관리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마다 관리 안내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의 정확한 관리지침이 없을 경우 여름철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종계관리를 해보면 여름철에 무더위로 인해 종계가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9~10월달에 발생하는 병아리들은 다른 계절에 입추하는 병아리들보다 입추시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해줘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환절기에 호흡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호흡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알아보자.

### 1. 호흡기 발생 원인들과 대책

호흡기 발생을 줄이려면 먼저 호흡기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닭의 호흡기 질병은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병하는 복잡한 질병이다.

우선 관리자로서 어쩔 수 없이 어미(종계)로부터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균에 감염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미로부터 받은 병아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필자가 시험해 본 바로는 설령 병아리 입추시 어미로부터 호흡기 발병 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추 관리가 양호하다면 보균만 하고 있지 발병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육추실 준비와 온도, 습도, 환경만 완벽하다면 모체로부터 균에 감염된 병아리라 할지라도 발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병아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추 준비나 기타 관리가 부족한 농장에서는 호흡기가 아주 심하게 발병하여 결국 15일령 정도 되면 대장균까지 감염되어 층어리가 심해지고 증체가 지연되면서 질병출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백신접종에 의한 후유증인데 요즘은 충분한 클리닝과 발달된 백신균주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특히 계군을 건강하게 사육 중이라면 백신에 대한 후유증은 호흡기질병으로 전환되지 않고 후유증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쉽게 없어진다.

세 번째는 영양적인 원인인데 비타민 A가 결핍되었거나 사료 배합에서 가끔 에너지와 단백질 함량의 불균형으로 호흡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에 마이코톡신(곰팡이)에 감염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닭을 건조하게 키우는 문제이다. 청결한 습도조건을 전제로 항상 60% 정도의 습은 출하시까지 꾸준히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계군이 설사를 하거나 깔짚이 얇아서 바닥이 질은 경우의 습이 아니라 청결한 습도를 강조하고 싶다.

8월달은 무창계사에서 쿨링패드 작동과 안개분무를 통한 습도유지이다. 개방계사에서 안개분무장치를 활용하거나 고압분무기라도 이용해서 습을 유지해줘야 한다. 건조한 것은 대부분 무창계사에서 뿔을 24시간 작동시키다보면 계사 내부가 건조해져서 문제가 된다.

관리 중 호흡기 발생의 두 번째 요인은 셋바람이다. 처음부터 춥게 관리하거나 덥게 관리하면 호흡기 발생이 적지만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호흡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8~9월은 주야간 온도차이로 인해 호흡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온도변화가 크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한다. 그런 이유로 셋바람은 닭에게 호흡기 발생의 주범이다.

관리중 세 번째 요인은 밀사(적정수수보다 많이 입

추)와 이로 인한 환기불량이다.

지금은 계사의 크기보다는 시설수준(급이, 급수, 뿔, 단열 등)과 출하중량, 계절적요인, 관리자의 능력 등에 의해 입추수수를 결정해야 한다.

## 2. 호흡기가 발생했을 경우의 관리요령

육계에서 호흡기 발생이 없이 닭을 사육하기는 매우 어렵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조치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호흡기가 발병하더라도 대부분 계군들은 호흡기 자체로 닭이 죽거나 증체가 지연되는 경우보다는 계군이 약해지면서 다른 질병발생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문제이다. 호흡기가 발병하면 가장 먼저 감염되는 것이 대장균이고 제일 많이 피해를 준다.

약품을 보면 종류가 제일 많은 것이 호흡기와 대장균 약이다. 그만큼 대장균이 큰 문제이다. 호흡기가 발병했다면 관리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대장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사에 청결한 습을 주는 일이다.

습을 유지하는데 약으로는 안될 일이다. 반드시 충분한 습을 공급해준다. 호흡기가 발생된 농장을 방문해보면 대부분 계사가 건조하다.

두 번째는 계사 공중에 떠 있는 먼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공기를 청정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습도 주면서 공중에 있는 먼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안개분무가 매우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제한된 용량의 음수소독제를 사용하여 음수소독을 해줘서 수평전파를 차단해주면 좋다.

네 번째는 이런 관리조치를 한 후 병행해서 약해진 계군의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AD<sub>3</sub>E와 전해질제를 공급하고 거담제를 투여해서 호흡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계사내 환경관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떠한 약품투여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C